

한국과 중국 여성의 캐주얼 스타일 비교연구

- 2008년 여름 서울과 상하이의 스트리트 패션을 중심으로 -

董蓓* · 오현아** · 배수정⁺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석사과정* ·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부교수⁺ · 전남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A Comparative Study of Casual Styles Between Korean and Chinese Women

- Focusing on 2008 Summer Street Fashion in Seoul and Shanghai -

Bei Dong* · Hyun-A Oh** · Soo-Jeong Bae⁺

Master Course,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Course,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uman Ecology Research Institute

(투고일: 2009. 8. 24, 심사(수정)일: 2009. 10. 6, 게재확정일: 2009. 11. 6)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contribute to the fashion industry of Korea and China by providing the basic informations of Korean fashion company planning to launch into the Chinese fashion market, and also presenting the Korean fashion style to the China, by the way of searching the sameness and differences of the casual style. The direct picturing method and comparative analysis were applied for the methods of study. The whole body pictures were taken from the major fashion streets of Seoul and Shanghai, then clear 250 photos were selected in each city. The period for two weeks from 1st, July to 14th, July 2008, and from 10AM until 5PM. The results of study are as follows. The sequential order of frequency is easy casual, jean casual, romantic casual and character casual in Seoul and Shanghai. In case of easy casual, there were many similarities of the preferences in the items, colors and coordinations, while showing the differences in the styling of the clothing. Taking the jean casual, there were no specific differences in items between two cities except the styling of clothing in which the tidy style were more prevalent in Seoul, while the sexy style were more predominant in Shanghai. The main item of romantic style was the one-piece dresses. This was preferred in the style of A-line or H-line with short length, in Seoul while X-silhouette showing the body line with knee-length skirts were more popular in Shanghai. Finally the frequency of character casual is below 5% in both cities. In the items, the skirts were more preferred as a bottom in Seoul in contrast with the pants being more prevalent in Shanghai, the sleeveless top popular in both cities. The modest style were noted in Seoul, the sexy style were more prevalent in Shanghai. However many similarities between two cities were found in the speed of acceptabilities of fashion.

Key words: casual style(캐주얼 스타일), street fashion(스트리트 패션), comparative analysis(비교연구)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세기에 접어들어 개성을 중시하고 유행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생활방식은 주 5일제의 확산과 더불어 더욱 여유로워지고 건강중심, 자연친화적이 되었다. 이는 현대인의 의생활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이 중에서도 의복의 캐주얼화¹⁾는 두드러진 현상으로 나타났다. 현재 의복 발전의 추세는 고기술·고기능성 의복을 중심으로 캐주얼화가 진행됨과 동시에 자연소재를 중심으로 한 쾌적하고 편안한 의복의 개발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²⁾. 이러한 전 세계적인 추세는 중국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중국에서 발표된 최근의 의복 판매량을 살펴보면 캐주얼의 판매량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할 전망이다. 조사에 따르면 젊은 소비계층의 의복 구매량 중에서 캐주얼이 차지하는 비율이 87%나 된다고 한다³⁾.

한편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래 해외 브랜드가 중국 의류시장에 물밀 듯 밀려들어옴과 동시에 중국 내의 자체 브랜드도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고, "한류"가 중국 내에서 붐에 따라 한국패션 기업도 대거 중국시장에 진출하였다⁴⁾. 현재도 한국의 패션브랜드는 중국시장에서 인기가 높아져 중국의 주요 대도시 거의 모든 곳에 매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⁵⁾. 이에 따라 중국 젊은 소비자들을 주 고객으로 한 글로벌 SPA(Specialty store retailer of Private label Apparel) 브랜드 및 한국 패션브랜드의 중국 진출, 중국 내수 브랜드의 론칭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한국의 패션 브랜드들은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섬유·패션업계의 불황 등의 여파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패션시장으로의 진출은 한국 패션업계가 다시 회복되는 돌파구이자 세계 패션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실험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국간 선호되는 스타일에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고, 같은 스타일이라 할지라도 그 착장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국 패션시장, 더 나

아가 세계의 패션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진출하고자 하는 현지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들의 패션감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수성이 크고 변화에 민감한 영층이 빠르게 패션계를 움직이는 시점에서 영 패션의 핵심이 되는 세계 곳곳의 스트리트는 패션의 발상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⁶⁾. 이러한 젊은 집단들은 기성세대의 방식과는 달리 그들만의 패션문화를 형성해가고 있으며, 특히 이들은 캐주얼 의류시장의 주요 소비자이기 때문에 중국의 캐주얼 의류시장에 진입하려는 한국 브랜드들은 이에 대한 정확한 자료의 축적 및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분야와 관련된 선행연구로, 김재은, 박길순⁷⁾은 중국의 신세대 패션에 한류 현상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베이징의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고, 김효숙⁸⁾은 베이징의 20-5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의복 디자인 선호도를 분석하였다. 김찬주와 노미경⁹⁾은 서울과 베이징의 젊은 여성들의 스트리트 패션을 중심으로 데님패션 품목과 디자인요소, 코디네이션 관점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였다. 최경희¹⁰⁾¹¹⁾는 베이징의 스트리트 패션에 나타는 캐주얼 이미지 분석 및 베이징 직장여성의 스트리트 패션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특성을 밝혔으며, 임순 외¹²⁾는 베이징과 서울의 스트리트 패션 비교를 통해 양국 간 선호되는 의복스타일의 세부적인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천지영¹³⁾, 오현아¹⁴⁾, 백정현¹⁵⁾, 배수정¹⁶⁾¹⁷⁾¹⁸⁾ 등은 중국 동북지역의 주요 도시인 다롄, 쉐양, 하얼빈 등을 중심으로 스트리트 스타일을 조사하여 선호 디자인을 분석한 지역적 연구를 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중 양국의 스트리트 패션을 중심으로 캐주얼 스타일의 아이템, 의복 색, 액세서리 비교분석을 통해서 착장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힘으로써 한국 패션업계에는 중국 패션시장으로의 진출에 기초정보를 제공하고, 중국 패션업계에는 한국의 유행 패션 스타일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방향에서 양국 패션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연구의 방법은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직접촬영법을 사용하였고 분석방법은 빈도분석과 내용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의 시간적·공간적 범위는 2008년 여름, 중국과 한국의 캐주얼 스타일을 중심으로 하였고, 연구의 주요 대상은 패션의 주 소비계층인 20-30대 여성의 스트리트 패션으로 하였다. 단, 스트리트 패션의 특성상 조사대상의 정확한 연령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외관상으로 추측되는 연령을 중심으로 하였음을 밝혀둔다.

본 논문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반부에서는 중국과 한국의 캐주얼 의류시장의 현황에 대한 고찰로 양국의 캐주얼 시장을 관련문헌과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캐주얼 스타일을 세부적으로 분류한다. 후반부에서는 앞서 분류된 캐주얼 스타일별로 한·중 양국의 스타일을 아이템, 의복색, 액세서리로 비교·분석하여 착장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힌다.

본 연구에서 연구의 대상 도시를 서울과 상하이로 선정할 이유는, 서울은 한국의 대표적인 패션도시이자 국제도시이고 상하이 역시 중국의 대표적인 국제도시이자 서울과 패션의 수준에 있어서 비교가 가능한 규모의 도시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주요 패션거리 선정에 있어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진 패션 스트리트 이면서 동시에 현지인에게서 재차 패션거리로 인정받은 검증된 장소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조사장소는 상하이는 난징루, 인민광장, 쓰촨루를 중심으로 하였고, 서울은 신촌(이화여대 앞), 명동, 압구정동(로데오 거리)을 중심으로 하였다. 조사시간은 2008년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2주간 실시하였고, 조사시간대는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시간대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실시하였다. 촬영은 디지털 카메라와 캠코더로 병행 촬영한 후, 연구에 필요한 전신착장 사진자료를 도시별로 각 250점씩 추출하였다. 사진 자료 추출은 본 연구에 참여한 3인의 의류학 연구자(상하이 출신 중국인 1인 포함)가 모두 동일한 스타일로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선정하였다. 본 연구 역시 선행연구와 유사한 연구방법을 사용하지만, 선행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캐주얼 스타일별 착장방법을 다루었다는데 차별성이 있다고 하겠다.

자료의 분석은 WINDOW용 SPSS 12.0(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프로그램으로 처리하여, 캐주얼 스타일별 아이템, 의복 색, 액세서리의 평균, 퍼센트, 빈도 분석을 행하였고, 착장방법은 내용분석을 행하였다.

II. 한·중 캐주얼 의류시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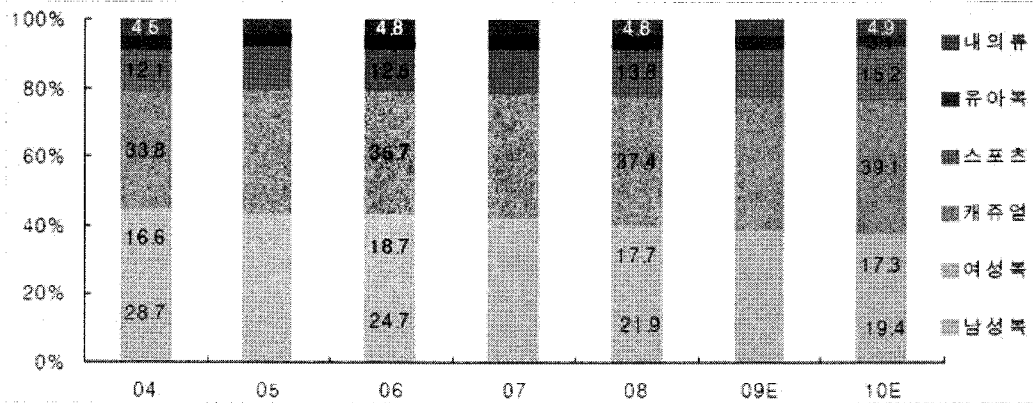
1. 한국의 캐주얼 의류시장

한국 캐주얼 시장은 1977년 '툰보이'의 론칭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1980년대 교복 자율화로 캐주얼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늘어나자 1990년 한섬의 '시스템', 신원의 '씨' 등을 시작으로 많은 영캐주얼 브랜드가 생겨나면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였다¹⁹⁾. 또한 90년대 초반에는 미시 캐주얼 시장이 본격화되고, 90년대 후반에는 디자이너 캐러티브(D/C) 브랜드가 증가하였다²⁰⁾.

1997년도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사태 전후로 불어 닥친 경제침체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소비자들은 중·저가품이나 세일제품을 선호하게 되었고, 패션시장에 있어서도 이 현상은 심각하게 나타났다. 2000년도 초반에는 진 캐주얼 유행의 확산과 해외 명품 직수입 브랜드가 활황을 맞이하였고²¹⁾, 스포츠의 확산과 웰빙 열풍에 힘입어 여성 스포츠 캐주얼 시장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중반 캐주얼 시장은 리딩 브랜드와 중소업체의 부진이 더욱 심화되어, 중저가 캐주얼 의류 중심으로 시장이 변화되었고 효율악화가 극대화되었다²²⁾ 2000년대 중후반 소비자들의 의식구조가 점차 변화하면서 직장인들의 패션이 캐주얼한 셔츠와 세미정장 재킷 등 세련되면서도 감도 높은 비즈니스 캐주얼로 바뀌게 되었고, 연료절감차원에서 넥타이를 매지 않거나 자율복장으로 근무가 가능한 업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²³⁾.

2008년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캐주얼 시장은 중단 브랜드가 속출하였고, 예측할 수 없는 불



〈그림 1〉 의류 복종별 비중 추이, 국내 의류시장 분석 및 향후 전망, p. 3.

규칙한 기후변화까지 겹쳐 의류 매출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객들의 소비 심리는 브랜드 로열티가 확실한 리딩 브랜드에 집중되는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또한 시장개방에 따른 글로벌 SPA 브랜드인 Zara, Mango, GAP, Papaya, Uniqlo, H&M의 수입은 패션시장에 본격적인 경쟁구도를 형성하였고, 국내 패션업체들은 경쟁을 위해 고객반응에 따라 제품생산 물량을 조절하는 QR(Quick Response) 시스템을 강화하고 차별화된 상품력과 해외유통망, 소싱 시스템 구축 등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²⁴⁾.

결국 2008년 국내 의류시장은 국내·외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 소비여력 감소, 해외 SPA 브랜드와의 경쟁 등 부정적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의류소비지출이 전년 대비 11.4%의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고, 의류시장은 전년 대비 2.1% 증가에 그친 약 22조 2,360억원으로 집계되었다²⁵⁾. 이 중에서 캐주얼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37.4%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림 1〉²⁶⁾의 국내 의류시장 분석 및 향후 전망에 의하면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국의 여성 캐주얼 시장의 연령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2000년대 초중반에는 10-20대 젊은 층이 전체의 44% 정도를 차지할 만큼 높은 구매력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20대 초반 여성 소비자들이 트렌드를 주도하면서 전체 시장 점유율에서도 18.6%라는 높은

구성비를 보이고 있는 핵심연령이었으나²⁷⁾, 2000년대 후반에는 실용성과 패션성을 동시에 지향하는 20-30대를 중심으로 가장 폭넓은 소비층이 형성되어 이들을 타깃으로 하는 여성 캐주얼 시장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SPA 브랜드들의 가장 비중이 높은 소비층도 30대로, 규모는 작지만 어덜트에서 파생된 여성 캐주얼 브랜드들이 이들을 겨냥한 일주일 단위의 스피드한 공급과 트렌드, 패션성을 보다 강조하는 것이 이 시장의 특징이다²⁸⁾.

현재 국내 주요 캐주얼 업체들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비즈니스 초점을 맞추어 30평내지 100평 규모의 대형매장(메가숍)을 확대하는 추세²⁹⁾이고, 글로벌 소싱력을 바탕으로 상품 경쟁력을 키운 이랜드, 아이올리, 아비스타, 보크레머천다이징, 코오롱 F&C, 제일모직, SK 네트웍스 등은 꾸준히 글로벌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시아 패션시장을 넘어서서 미주, 유럽 등의 시장 개척에도 노력하고 있다³⁰⁾.

2. 중국의 캐주얼 의류시장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2005년 유통자유화, 2008년 베이징올림픽, 2010년 상하이세계무역박람회 개최 등 10여 년 동안 새로운 경제동력 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중국 의류업계의 무역수출량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 내수용 의류업체는 단순 임가공에서 디자인과 창의성을 중시한 고부가

가치 제품생산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국의 패션산업은 급성장하였고, 이 중에서도 캐주얼 의류 시장은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된 캐주얼 의류 시장은 약 20여 년 동안 3차례의 변혁을 거쳐왔다. 1992년 홍콩의 패션 브랜드 'Giodano'가 최초로 광저우(廣州)에 진출하면서 시작된 중국 캐주얼 시장은 'Jeans West', 'Bossini' 등이 잇따라 홍콩과 광둥(廣東)으로 진출하면서 빠른 속도로 중국 전 지역 시장을 석권했으며 중국 소비자들의 패션에 대한 관념과 트렌드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³¹⁾.

90년대 말에 출현한 제 2기 캐주얼 브랜드들은 더욱 다양한 스타일, 품질, 가격, 트렌드를 구현하며 거대하게 성장하여 새로운 브랜드들이 대거 출현하였다. 그리고 2000년도에 접어들어 3기 캐주얼 시장이 형성되었는데, 기존의 캐주얼이 영캐주얼 위주였다면 이 시기는 더 넓은 고객층을 타깃으로 확보하여 연령층이 다양해진 것이 특징이다. 특히, 기존에는 소비층의 나이, 수입 등으로 시장을 세분화하였던 것과는 달리 이 시기는 소비인구의 라이프스타일, 가치관 등 다양하고 심층적인 내용들을 반영하여 시장을 구분하게 되었다. 또한 글로벌 SPA 브랜드의 중국 진출로 인해 중국 내수 브랜드는 생산라인을 확보하고 제품의 완성도, 선진적 경영방식, 홍보 마케팅, 트렌드를 더욱 강조하는 등 변화를 겪게 되었다. 특히 2008년에는 전 세계적인 경제침체로 인해 대외무역에 어려움을 겪자 산업과 시장의 눈을 중국 내수로 돌려 중국 국내브랜드와 해외브랜드는 중국 내에서 더욱 격렬한 경쟁양상을 나타냈다. 특히 패션시장은 그 경쟁이 더욱 치열하여 전 세계 패션 브랜드의 각축장이 되었다. 현재도 중국 캐주얼 시장은 스포츠 캐주얼, 레저 캐주얼(아웃도어 캐주얼) 등 다양한 목적에 따라 의류가 세분되어 신상품들이 디자인되고 제작, 판매되는 캐주얼의 분화가 진행되고 있다³²⁾.

중국은 2008년 말 국민소득의 지속적인 상승세에 힘입어 GDP 3000 달러 시대에 접어들었으며, 소비재 판매액이 최근 수년간 평균 12% 이상 증가하는 등 소비시장의 규모가 팽창하여³³⁾ 패션시장의 규모도 5,000억 위안(2007년 기준)으로 거대해 졌다³⁴⁾. 중국

소비자들은 의류가 착용자의 품위를 대표한다고 생각하므로 명품 의류와 액세서리의 구매를 투자행위로 간주하고, 자신의 지위와 개성을 표출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 특히 여성 소비자들은 물질의 소유를 통해 자신의 만족과 생의 즐거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의류구매에 있어서도 백화점이나 유명 브랜드를 판매하는 전문매장에서 고가의 의류제품을 구매하는 성향이 있다³⁵⁾.

본 연구의 대상인 상하이의 여성들은 국제적인 패션 감각을 가지고 있고, 세련된 옷차림을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20-30대의 젊은 여성의 의류 소비 빈도와 소비액은 매우 높고 선호하는 스타일도 다양하다. 특히 외자 기업에 다니는 고소득 전문직 여성들은 상하이의 패션을 주도하며 국제적인 트렌드를 중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수용하고 있다³⁶⁾.

이처럼 중국소비자의 캐주얼 의류에 대한 관심은 점점 고조되고 있으며, 중국의류시장에서 캐주얼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중국의 세계화와 더불어 중국 캐주얼 시장의 다양화, 소비자의 개성화 추세로 인해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캐주얼 스타일의 분류

캐주얼 스타일은 소비자의 실용적인 패션추구 성향에 부응하는 실용성과 일상성이 동시에 고려된 스타일로, 언제라도 자유롭게 착용할 수 있으며 연령에 구애 받지 않고 착용가능한 편안한 의복으로 일반적으로 정의된다³⁷⁾. 그러나 같은 캐주얼 스타일 일지라도 주로 사용된 소재나 색, 착용방법, 코디네이션에 따라서 세부적인 스타일 차이를 보이므로 본 연구를 위해 촬영한 자료 중 의미있는 빈도를 보이는 캐주얼 스타일을 진 캐주얼, 이지 캐주얼, 캐릭터 캐주얼, 로맨틱 캐주얼로 구분하였으며, 그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진 캐주얼(jean casual)은 청바지나 청치마 등 진(jean)소재 의류와 함께 코디네이션 된 스타일을 말한다³⁸⁾. 김기옥은 주 5일 근무의 확산으로 여가와 즐거운 삶에 대한 대중의 욕구가 증가하고, 맞춰진 틀을 쫓는 삶이 아닌 스스로의 삶을 여유있게 꾸려가

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패션에서 그들이 니즈를 충족하고자 하는 방편으로 선택된 것이 바로 진 캐주얼이라고 하였다³⁹⁾. 본 연구에서는 인디고 컬러의 진 소재 스커트, 팬츠, 재킷, 오버롤, 원피스 등의 아이템을 한개 이상 포함한 경우를 진 캐주얼로 분류하였다. 왜냐하면 블랙 진이나 화이트 진의 경우는 육안으로 그 소재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진 소재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인디고 블루의 진 소재만으로 한정하였다.

이지 캐주얼(easy casual)은 캐주얼 스타일의 가장 대표적인 스타일로 특별한 소재나 디테일의 구분 없이 편히 착용할 수 있는 자연스럽고 편안한 스타일을 말한다⁴⁰⁾. 이지 캐주얼은 신체를 구속하지 않는 여유있는 실루엣이 많으며 유니섹스 스타일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색도 스타일과 마찬가지로 내추럴 컬러 위주의 편안한 느낌을 주는 색이 선호되고 스타일링도 여유있고 헐렁하며 자유롭게 레이어링한 스타일을 이 범주에 포함하였다.

로맨틱 캐주얼(romantic casual)은 프릴이나 레이스, 자수 등의 장식기법, 퍼프 슬리브, 부팡 스커트 같은 과장되고 귀여운 느낌의 장식적 디테일과 파스텔 톤의 색상 등으로 로맨틱하고 여성적인 이미지가 가미된 스타일⁴¹⁾로 분류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로맨틱 캐주얼은 여성스럽고, 귀여운 이미지를 가진 스타일로, 쉬폰과 레이스, 얇은 면 소재에 리본, 러플, 플라운스, 코사지 등의 장식기법과 개더, 퍼프 등이 활용되어 로맨틱하면서도 캐주얼한 멋을 낸 스타일로 한정하였다.

캐릭터 캐주얼(character casual)은 뚜렷한 의복 규범이 있지 않는 한 다양한 상황에서 입을 수 있으며, 개인의 독특한 성격을 강하게 나타낼 수 있는 스타일을 말한다⁴²⁾. 본 연구에서는 변형된 햄라인, 칼

라, 소매, 독특한 로고나 문양의 활용으로 착용자의 개성이 드러나는 강렬하거나 독특한 스타일로 한정하였다. 특히 black, white, gray 등의 무채색 계열의 색과 강렬한 원색의 활용, 특이한 광택 소재의 활용, 코팅소재 및 스트레치 소재(stretched fabric) 등이 독특하게 활용된 경우도 이 범주에 포함하였다.

Ⅲ. 한·중 캐주얼 스타일 비교분석

2008년 여름 서울과 상하이의 캐주얼 스타일을 분석한 결과 서울과 상하이에서 모두 이지 캐주얼(서울:43.2%, 상하이: 42.4%)이 가장 선호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에서 보면 서울과 상하이에서는 이지 캐주얼, 진 캐주얼, 로맨틱 캐주얼, 캐릭터 캐주얼 순으로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일별로 자세히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 이지 캐주얼

이지 캐주얼 스타일은 서울 43.2%, 상하이 42.4%로 착용빈도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지 캐주얼 스타일의 아이템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는데, 상·하의로 착용한 경우가 서울 84.3%, 상하이 90.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상의는 두 도시 모두 티셔츠의 빈도(서울 54.9%, 상하이 68.8%)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슬리브리스(서울 18.7%, 상하이 16.7%), 블라우스(서울 7.7%, 상하이 9.4%) 순으로 비슷한 빈도를 보이고 있었다.

하의는 두 도시 모두에서 스커트 보다 팬츠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아마도 이지 캐주얼의 특성상 편히 착용할 수 있는 자연스럽고 편안한 스타일이 선호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먼저

<표 1> 서울과 상하이 캐주얼 스타일 분석표(%)

스타일	서울	상하이
이지 캐주얼	108(43.2%)	106(42.4%)
진 캐주얼	103(41.2%)	102(40.8%)
로맨틱 캐주얼	31(12.4%)	30(12.0%)
캐릭터 캐주얼	8(3.2%)	12(4.8%)
합계	250(100%)	250(100%)

<표 2> 이지 캐주얼 스타일 아이템 비교표(%)

의복 스타일	아이템		서울	상하이	
이지 캐주얼 (상의)	티셔츠		50(54.9)	66(68.8)	
	셔츠		15(16.5)	4(4.1)	
	블라우스		7(7.7)	9(9.4)	
	니트		2(2.2)	1(1.0)	
	슬리브리스		17(18.7)	16(16.7)	
	합계		91(100)	96(100)	
이지 캐주얼 (하의)	유형별	스커트	타이트스커트	2(2.2)	1(1.0)
			A라인스커트	13(14.3)	8(8.3)
			플레어스커트	11(12.1)	9(9.4)
			폴리츠스커트	0(0.0)	1(1.0)
			타어드 스커트	1(1.1)	0(0.0)
		팬츠	스트레이트 팬츠	37(40.7)	55(57.4)
			벨모담 팬츠	2(2.2)	0(0.0)
			스키니 팬츠	2(2.2)	3(3.1)
			카고 팬츠	16(17.5)	10(10.4)
			롤업 팬츠	1(1.1)	0(0.0)
	레깅스		6(6.6)	9(9.4)	
	합계		91(100)	96(100)	
	길이별	스커트	샤넬라인 스커트	8(8.8)	7(7.3)
			미디스커트	6(6.6)	6(6.3)
			맥시스커트	0(0.0)	1(1.0)
			미니스커트	13(14.3)	6(6.3)
		팬츠	슬 팬츠	27(29.7)	23(24.0)
			5부 팬츠	10(11.0)	20(20.8)
			7/9부 팬츠	11(12.1)	26(27.1)
			플렝스 팬츠	16(17.5)	8(8.3)
합계		91(100)	96(100)		
원피스	H-실루엣 원피스		9(52.9)	6(60.0)	
	A-실루엣 원피스		7(41.2)	4(40.0)	
	X-실루엣 원피스		1(5.9)	0(0.0)	
	합계		17(100)	10(100)	

스커트 길이에 있어서는 두 지역간에 빈도가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미니스커트는 서울 14.3%, 상하이 6.3%, 샤넬 라인 스커트는 서울 8.8%, 상하이 7.3%, 미디스커트는 서울 6.6%, 상하이 6.3%로 나타나서 서울이 상하이보다 미니스커트의 착용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팬츠의 길이에 있어서는 두 지역 모두 슬 팬츠의 빈도가 가장 높았는데 서울 29.7%, 상하이 24.0%로 나타났다. 형태에 있어서는 두 지역 모두 스트레이트 팬츠(서울 40.7%, 상하이 57.4%)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다음은 카고 팬츠(서울 17.5%, 상하이 10.4%), 스키니 팬츠(서울 2.2%, 상하이 3.1%) 순으로 나타났다. 원피스는 이지 캐주얼에서 서울 15.7%, 상하이 9.4%로 낮은 빈도를 차지하

고 있으며, 두 도시 모두 H-실루엣원피스가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 색은 상의에서는 Multi 계열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그 다음 White 계열(서울 18.6%, 상하이 24.0%), Black 계열(서울 8.8%, 상하이 12.5%) 순으로 나타났다. 하의는 서울의 경우 White가 28.5%, Black이 27.5%로 유사한 비율로 나타난 반면, 상하이에서는 Black이 35.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White가 22.9%로 나타나서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표 3>.

액세서리에 있어서 가방은 슬더백이 서울 70.7%, 상하이 7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토드백은 서울 15.9%, 상하이 6.3%로 빈도에 차이가 나타났고,



〈그림 2〉
서울 이지
캐주얼 스타일



〈그림 3〉
서울 이지 캐주얼
스타일



〈그림 4〉
상하이 이지
캐주얼 스타일



〈그림 5〉
상하이 이지
캐주얼 스타일

〈표 3〉 이지 캐주얼 스타일 색상별 비교표(%)

분류	상의		하의		원피스	
	서울	상하이	서울	상하이	서울	상하이
Red	2(2.2)	2(2.1)	0(0.0)	1(1.0)	1(5.9)	0(0.0)
Orange	0(0.0)	0(0.0)	0(0.0)	2(2.1)	0(0.0)	0(0.0)
Yellow	1(1.1)	2(2.1)	0(0.0)	2(2.1)	0(0.0)	2(20.0)
Pink	5(5.5)	9(9.4)	0(0.0)	2(2.1)	0(0.0)	0(0.0)
Brown	3(3.3)	0(0.0)	4(4.4)	3(3.1)	1(5.9)	0(0.0)
Green	1(1.1)	2(2.1)	0(0.0)	1(1.0)	0(0.0)	1(1.0)
Khaki	0(0.0)	0(0.0)	7(7.7)	5(5.2)	0(0.0)	5(5.2)
Blue	4(4.4)	4(4.1)	10(11.0)	2(2.1)	4(23.5)	2(2.1)
Violet	0(0.0)	2(2.1)	0(0.0)	0(0.0)	0(0.0)	0(0.0)
Purple	1(1.1)	1(1.0)	1(1.1)	0(0.0)	0(0.0)	0(0.0)
Multi	39(42.9)	33(34.4)	6(6.6)	10(10.4)	6(35.2)	10(10.4)
White	20(21.9)	24(25.0)	26(28.5)	22(22.9)	1(5.9)	22(22.9)
Gray	7(7.7)	5(5.2)	12(13.2)	12(12.5)	2(11.8)	12(12.5)
Black	8(8.8)	12(12.5)	25(27.5)	34(35.5)	2(11.8)	3(30.0)
합계	91(100)	96(100)	91(100)	96(100)	17(100)	10(100)

크로스백은 서울 13.4%, 상하이 21.2%로 유사한 빈도로 나타났다. 신발은 서울에서는 슬리퍼를 39.8%로 가장 많이 착용했으며, 상하이에서는 스니커즈를 35%로 가장 많이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하이에서는 미디스커트와 스니커즈의 매치가 눈에 띄었는데 이는 서울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스타일이었다. 그 다음은 샌들(서울 28.7%, 상하이 33.0%), 펌프스(서울 5.6%, 상하이 2.8%) 순으로 나타났으며, 두 도

시 간에 큰 빈도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표 4).

착장방법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그림 2, 3〉과 〈그림 4, 5〉는 매우 유사하게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상의 신체 노출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 서울의 이지 캐주얼은 비교적 신체 노출이 적고 여유있는 스타일인 반면, 상하이의 이지 캐주얼은 상의를 하의의 안에 넣어 착용함으로써 신체선이 더 드러나고 타이트하며, 특히 슬리브리스의 경우 팔과 어

<표 4> 이지 캐주얼 스타일 코디네이션 비교표(%)

구분	액세서리	서울	상하이
신발	펌프스	6(5.6)	3(2.8)
	샌들	31(28.7)	35(33.0)
	슬리퍼	43(39.8)	31(29.2)
	스니커즈	28(25.9)	37(35.0)
	합계	108(100)	106(100)
가방	토드백	13(15.9)	5(6.3)
	솔더백	58(70.7)	58(72.5)
	크로스백	11(13.4)	17(21.2)
	합계	82(100)	80(100)

<표 5> 진 캐주얼 스타일 아이템 비교표(%)

의복 스타일	아이템		서울	상하이	
진 캐주얼 (상의)	티셔츠		41(42.3)	55(53.9)	
	셔츠		17(17.5)	14(13.7)	
	블라우스		17(17.5)	12(11.8)	
	니트		2(2.1)	0(0.0)	
	슬리브리스		20(20.6)	21(20.6)	
	합계		97(100)	102(100)	
진 캐주얼 (하의)	유형별	스커트	타이트스커트	8(8.2)	6(5.8)
			A라인스커트	9(9.3)	5(4.9)
			플레어스커트	0(0.0)	2(2.0)
			플리즈스커트	0(0.0)	1(1.0)
			티어드 스커트	0(0.0)	1(1.0)
		팬츠	스트레이트 팬츠	54(55.7)	55(53.9)
			벨보텀 팬츠	5(5.2)	1(1.0)
			스키니 팬츠	4(4.1)	1(1.0)
			카고 팬츠	3(3.1)	5(4.9)
			롤업 팬츠	14(14.4)	25(24.5)
	레깅스		0(0.0)	0(0.0)	
	합계		97(100)	102(100)	
	길이별	스커트	샤넬라인 스커트	1(1.0)	5(4.9)
			미디스커트	0(0.0)	0(0.0)
			맥시스커트	0(0.0)	0(0.0)
			미니스커트	16(16.5)	10(9.8)
		팬츠	핫팬츠	19(19.6)	27(26.5)
			5부 팬츠	7(7.2)	16(15.7)
			7/9부 팬츠	9(9.3)	25(24.5)
			플랜스 팬츠	45(46.4)	19(18.6)
합계		97(100)	102(100)		
원피스	H-실루엣 원피스		3(50.0)	0(0.0)	
	A-실루엣 원피스		2(33.3)	0(0.0)	
	X-실루엣 원피스		1(16.7)	0(0.0)	
	합계		6(100)	0(0.0)	

깨, 가슴부위를 대담하게 노출한 경우가 많았다.

2. 진 캐주얼

서울의 진 캐주얼 착용자는 40.8%이고, 상하이의

진 캐주얼 착용자는 41.2%로 유사한 빈도로 나타났다. 먼저 의복의 아이템에서, 상·하의로 착용한 경우가 서울이 94.2%, 상하이가 100%로 이지 캐주얼보다 더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상의는 티셔츠가 두 지역(서울 42.3%, 상하이 53.9%)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슬리브리스(서울 20.6%, 상하이 20.6%), 블라우스(서울 17.5%, 상하이 11.8%)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지 캐주얼과 빈도는 다르지만 선호 순위는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의는 두 도시 모두에서 팬츠의 비율이 매우 높았으며, 특히 스트레이트팬츠(서울 55.7%, 상하이 53.9%)와 롤업 팬츠(서울 14.4%, 상하이 24.5%)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팬츠의 길이에 있어서는 상하이는 숏 팬츠가 26.5%로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서울은 플레ங 팬츠가 4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스커트는 착용 비율이 낮았으나, 착용된 중에서는 미니스커트가 서울 16.5%, 상하이 9.8%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서 두 도시 모두에서 미니스커트가 유행함을 알 수 있었다. 진 소재의 원피스는 서울은 6명(5.8%), 상하이에서는 착용 사례가 없었으므로 진 캐주얼에서는 원피스 스타일의 착용빈도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표 5>.

의복 색은 상의에서는 두 지역 모두 Multi 계열의

빈도(서울 40.2%, 상하이 36.7%)가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White 계열이 서울 16.5%, 상하이 26.4%로, Black이 서울 13.4%, 상하이 18.6%로 나타났다. 하의는 두 지역 모두 Blue 계열(서울 61.9%, 상하이 71.6%)의 빈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Multi 계열(서울 20.6%, 상하이 22.5%)이 높게 나타났다<표 6>.

진 캐주얼에 주로 코디되는 가방은 숄더백으로 두 지역에서 모두 가장 높은 비율(서울 78.9%, 상하이 76.5%)로 나타났다. 신발은 서울에서는 슬리퍼의 비율(37.9%)이 가장 높았고, 상하이에서는 스니커즈의 비율(37.3%)이 가장 높았다. 이는 이지 캐주얼과 같은 현상으로 중국에서의 스니커즈 유행경향을 알게 해준다. 특히 빅 숄더백의 유행은 서울과 상하이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어서 액세서리 코디네이션 측면에서 유행의 수용 속도가 두 도시 간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표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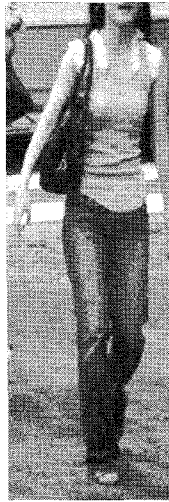
착장방법에 있어서는, 상하이의 이지 캐주얼의 경우와 유사하게 진 캐주얼에서도 신체를 노출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같은 티셔츠라 할지라도 어딘가에 트임이나 절개가 있어서 <그림 8, 9>처럼 신체의 일부분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았고, 서울의 경우는 <그림 6, 7>처럼 비교적 신체노출이 적은 차이점이 있었다.

<표 6> 진 캐주얼 스타일 색상별 비교표(%)

분류	상의		하의		원피스	
	서울	상하이	서울	상하이	서울	상하이
Red	1(1.0)	2(1.9)	0(0.0)	0(0.0)	0(0.0)	0(0.0)
Orange	1(1.0)	0(0.0)	0(0.0)	0(0.0)	0(0.0)	0(0.0)
Yellow	2(2.1)	1(0.9)	0(0.0)	0(0.0)	0(0.0)	0(0.0)
Pink	9(9.3)	4(3.9)	0(0.0)	0(0.0)	0(0.0)	0(0.0)
Brown	0(0.0)	0(0.0)	0(0.0)	0(0.0)	0(0.0)	0(0.0)
Green	2(2.1)	3(2.9)	0(0.0)	0(0.0)	0(0.0)	0(0.0)
Khaki	0(0.0)	0(0.0)	1(1.0)	0(0.0)	0(0.0)	0(0.0)
Blue	8(8.2)	2(1.9)	60(61.9)	73(71.6)	3(50.0)	0(0.0)
Violet	0(0.0)	0(0.0)	0(0.0)	0(0.0)	0(0.0)	0(0.0)
Purple	1(1.0)	0(0.0)	0(0.0)	0(0.0)	0(0.0)	0(0.0)
Multi	39(40.2)	37(36.7)	20(20.6)	23(22.5)	3(50.0)	0(0.0)
White	18(18.6)	27(26.4)	0(0.0)	0(0.0)	0(0.0)	0(0.0)
Gray	3(3.1)	7(6.8)	9(9.3)	2(2.0)	0(0.0)	0(0.0)
Black	13(13.4)	19(18.6)	7(7.2)	4(3.9)	0(0.0)	0(0.0)
합계	97(100)	102(100)	97(100)	102(100)	6(100)	0(0.0)



〈그림 6〉
서울 진 캐주얼
스타일



〈그림 7〉
서울 진
캐주얼 스타일



〈그림 8〉
상하이 진 캐주얼
스타일



〈그림 9〉
상하이 진 캐주얼
스타일

〈표 7〉 진 캐주얼 스타일 코디네이션 비교표(%)

구분	엑세서리	서울	상하이
신발	펌프스	4(3.9)	2(2.0)
	샌들	29(28.1)	29(28.4)
	슬리퍼	39(37.9)	33(32.3)
	스니커즈	31(30.1)	38(37.3)
	합계	103(100)	102(100)
가방	토드백	12(15.8)	3(3.7)
	숄더백	60(78.9)	62(76.5)
	크로스백	4(5.3)	16(19.8)
	합계	76(100)	82(100)

3. 로맨틱 캐주얼

로맨틱 캐주얼 스타일은 서울 12.4%, 상하이 12.0%로 두 도시의 빈도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로맨틱 캐주얼의 주요 아이템은 원피스로, 서울 58.1%, 상하이 73.3%로 높게 나타났다. 상·하의로 착용되는 경우, 상의에서는 블라우스의 빈도가 서울과 상하이 모두에서 높았고, 하의는 두 지역 모두 스커트가 팬츠보다 더 선호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로맨틱 스타일의 특성이 여성스럽고, 귀여운 이미지를 가진 스타일이므로 남성적인 느낌의 바지보다 스커트를, 상·하의보다 원피스를 더 많이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 스커트의 길이와 형태에 있어서, 서울에서는 A-라인 미니스커트가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고, 상하이에서는 샤넬라인의 플레어스커트가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원피스에 있어서는 서울에서는 H-실루엣 미니원피스가 가장 높았으나, 상하이에서는 X-실루엣의 무릎길이 원피스의 빈도가 가장 높아 신체선을 강조하는 상하이 여성들의 성향을 알 수 있었다(표 8).

의복 색에 있어서 상의는 서울 지역은 White가 53.8%로 가장 높았으며, 상하이 지역 역시 White 계열이 37.5%로 가장 빈도가 높았다. 이는 여름이라는 계절적 요인의 영향으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하의

〈표 8〉 로맨틱 캐주얼 스타일 아이템 비교표(%)

의복 스타일		아이템	서울	상하이	
로맨틱 캐주얼 (상의)	티셔츠		1(7.7)	1(12.5)	
	셔츠		0(0.0)	0(0.0)	
	블라우스		9(69.2)	4(50.0)	
	니트		1(7.7)	1(12.5)	
	슬리브리스		2(15.4)	2(25.0)	
		합계	13(100)	8(100)	
로맨틱 캐주얼 (하의)	유형별	스커트	타이트스커트	1(7.7)	0(0.0)
			A라인스커트	7(53.8)	1(12.5)
			플레어스커트	1(7.7)	3(37.5)
			플리츠스커트	0(0.0)	2(25.0)
			티어드 스커트	1(7.7)	0(0.0)
		팬츠	스트레이트 팬츠	2(15.4)	1(12.5)
			벨보텀 팬츠	0(0.0)	0(0.0)
			스키니 팬츠	0(0.0)	0(0.0)
			카고 팬츠	0(0.0)	0(0.0)
	물업 팬츠		0(0.0)	0(0.0)	
			레깅스	1(7.7)	1(12.5)
			합계	13(100)	8(100)
	길이별	스커트	샤넬라인 스커트	3(23.1)	3(37.5)
			미디스커트	0(0.0)	0(0.0)
			맥시스커트	0(0.0)	1(12.5)
			미니스커트	7(53.8)	2(25.0)
		팬츠	솔 팬츠	2(15.4)	0(0.0)
			5부 팬츠	1(7.7)	1(12.5)
			7/9부 팬츠	0(0.0)	1(12.5)
플랜스 팬츠			0(0.0)	0(0.0)	
			합계	13(100)	8(100)
원피스	H-실루엣 원피스		8(44.4)	7(31.8)	
	A-실루엣 원피스		7(38.9)	6(27.3)	
	X-실루엣 원피스		3(16.7)	9(40.9)	
	합계		18(100)	22(100)	

색은 서울 지역은 Black과 Brown 계열이 각각 30.8%의 비율로 나타난 반면, 상하이 지역은 Multi 계열이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원피스는 모두 Multi 계열의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그림 12〉처럼 원피스에 사용된 대담한 꽃문양이나 기하학적문양의 영향으로 파악된다(표 9).

로맨틱 캐주얼 스타일에 주로 코디되는 가방은 솔더백으로 서울(66.7%)과 상하이(75.0%)에서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신발은 서울은 샌들이 48.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상하이는 슬리퍼가 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10).

착장방법에 있어서는 서울의 경우 〈그림 10, 11〉처럼 미니스커트나 미니원피스 등 길이가 짧으면서

신체선을 드러내지 않는 하이웨이스트의 A-실루엣이나 H-실루엣의 빈도가 높은 반면, 상하이에서는 〈그림 12, 13〉처럼 스커트 길이가 무릎길이하로 좀 더 길면서 신체에 타이트하게 밀착되는 X-실루엣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두 도시 간 미묘한 착장방법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4. 캐릭터 캐주얼

캐릭터 캐주얼은 두 도시 모두에서 그다지 빈도(서울 3.2%, 상하이 4.8%)가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 캐릭터 캐주얼의 아이템에 있어서 상의는 두 도시 모두 슬리브리스(서울 100%, 상하이 77.8%)가 높은

<표 9> 로맨틱 캐주얼 스타일 색상 비교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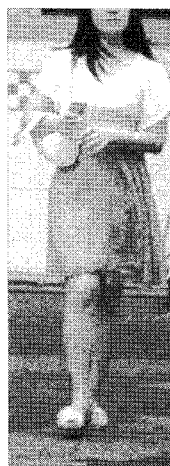
분류	상위		하위		원퍼스	
	서울	상하이	서울	상하이	서울	상하이
Red	0(0.0)	0(0.0)	0(0.0)	0(0.0)	0(0.0)	1(4.5)
Orange	0(0.0)	0(0.0)	0(0.0)	0(0.0)	0(0.0)	0(0.0)
Yellow	0(0.0)	0(0.0)	0(0.0)	0(0.0)	1(5.6)	0(0.0)
Pink	1(7.7)	1(12.5)	0(0.0)	0(0.0)	1(5.6)	0(0.0)
Brown	0(0.0)	0(0.0)	4(30.8)	0(0.0)	0(0.0)	0(0.0)
Green	0(0.0)	0(0.0)	0(0.0)	0(0.0)	0(0.0)	1(4.5)
Khaki	0(0.0)	0(0.0)	0(0.0)	0(0.0)	0(0.0)	0(0.0)
Blue	0(0.0)	0(0.0)	1(7.7)	0(0.0)	0(0.0)	0(0.0)
Violet	0(0.0)	0(0.0)	0(0.0)	1(12.5)	0(0.0)	0(0.0)
Purple	1(7.7)	0(0.0)	0(0.0)	0(0.0)	0(0.0)	0(0.0)
Multi	4(30.8)	2(25.0)	2(15.3)	3(37.5)	16(88.8)	13(59.1)
White	7(53.8)	3(37.5)	1(7.7)	1(12.5)	0(0.0)	4(18.3)
Gray	0(0.0)	0(0.0)	1(7.7)	1(12.5)	0(0.0)	1(4.5)
Black	0(0.0)	2(25.0)	4(30.8)	2(25.0)	0(0.0)	2(9.1)
합계	13(100)	8(100)	13(100)	8(100)	18(100)	22(100)

<표 10> 로맨틱 캐주얼 스타일 코디네이션 비교표(%)

구분	액세서리	서울	상하이
신발	펌프스	4(12.9)	7(23.3)
	샌들	15(48.4)	10(33.3)
	슬리퍼	7(22.6)	9(30.0)
	스니커즈	5(16.1)	4(13.4)
	합계	31(100)	30(100)
가방	토드백	6(33.3)	5(25.0)
	숄더백	12(66.7)	15(75.0)
	크로스백	0(0.0)	0(0.0)
	합계	18(100)	20(100)



<그림 10>
서울 로맨틱
캐주얼 스타일



<그림 11>
서울 로맨틱
캐주얼 스타일



<그림 12>
상하이 로맨틱
캐주얼 스타일



<그림 13>
상하이 로맨틱
캐주얼 스타일

<표 11> 캐릭터 캐주얼 스타일 아이템 비교표(%)

의복 스타일	아이템	서울	상하이		
캐릭터 캐주얼 (상의)	티셔츠	0(0.0)	0(0.0)		
	셔츠	0(0.0)	1(10.0)		
	블라우스	0(0.0)	1(10.0)		
	니트	0(0.0)	0(0.0)		
	슬리브리스	6(100.0)	8(80.0)		
	합계	6(100)	10(100)		
캐릭터 캐주얼 (하의)	유형별	스커트	타이트스커트	0(0.0)	1(10.0)
			A라인스커트	2(33.2)	0(0.0)
			플레어스커트	1(16.7)	0(0.0)
			플릭스스커트	1(16.7)	0(0.0)
			티어드 스커트	0(0.0)	1(10.0)
	팬츠	스트레이트 팬츠	1(16.7)	5(50.0)	
		벨보텀 팬츠	0(0.0)	0(0.0)	
		스키니 팬츠	0(0.0)	0(0.0)	
		카고 팬츠	0(0.0)	2(20.0)	
		롤업 팬츠	0(0.0)	0(0.0)	
	레깅스	1(16.7)	1(10.0)		
	합계	6(100)	10(100)		
	길이별	스커트	샤넬라인 스커트	1(16.7)	1(10.0)
			미디스커트	0(0.0)	0(0.0)
			맥시스커트	2(33.2)	0(0.0)
			미니스커트	1(16.7)	1(10.0)
		팬츠	슬 팬츠	1(16.7)	3(30.0)
			5부 팬츠	0(0.0)	2(20.0)
			7/9부 팬츠	0(0.0)	1(10.0)
			플랜스 팬츠	1(16.7)	2(20.0)
합계	6(100)	10(100)			
원피스	H-실루엣 원피스	1(50.0)	2(100.0)		
	A-실루엣 원피스	1(50.0)	0(0.0)		
	X-실루엣 원피스	0(0.0)	0(0.0)		
	합계	2(100)	2(100)		

빈도로 나타났다. 하의에 있어서는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 서울에서는 A-라인스커트, 플레어스커트 등의 스커트가 주로 착용된 반면, 상하이에서는 스트레이트 팬츠나 카고 팬츠 등 팬츠가 주로 착용되었다. 원피스는 두 지역 모두 H-실루엣의 슬리브리스 미니원피스가 유행하였는데, 이 경우 레깅스를 레이어드 룩으로 착용한 예가 있었다(표 11).

의복 색은 상의에서는 Multi 계열(서울 33.2%, 상하이 20.0%)과 Red 계열(서울 16.7%, 상하이 11.1%)이 두 도시에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으며, Black 계열의 비율이 서울 16.7%, 상하이 40.0%로 나타났다. 하의 색은 Black 계열이 서울 33.2%, 상하이 55.6%로 나타났다(표 12). 캐릭터 캐주얼에서 상

하이 지역은 서울보다 Black 계열처럼 안정적인 있는 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릭터 캐주얼 스타일에 주로 코디되는 가방은 두 지역 모두 숄더백(서울 85.7%, 상하이 62.5%)의 착용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신발은 모두 슬리퍼(서울 62.5%, 상하이 58.3%)가 가장 선호되었다(표 13).

착장방법에 있어서는 두 도시 모두에서 길이가 긴 상의나 원피스를 레깅스와 레이어드룩으로 착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특히 레깅스는 무릎길이, 장단지, 긴 길이 등 다양한 길이로 착용되고 있었으며 과감하게 상반신을 노출한 탱크탑이나 베어탑, 캐미솔 탑이 타이트한 레깅스와 매치되어 착용자의 개성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그림 14>와

<표 12> 캐릭터 캐주얼 스타일 색상 비교표(%)

분류	상의		하의		원피스	
	서울	상하이	서울	상하이	서울	상하이
Red	1(16.7)	1(10.0)	0(0.0)	0(0.0)	1(50.0)	0(0.0)
Orange	0(0.0)	0(0.0)	1(16.7)	0(0.0)	0(0.0)	0(0.0)
Yellow	0(0.0)	0(0.0)	0(0.0)	1(10.0)	0(0.0)	0(0.0)
Pink	1(16.7)	1(10.0)	1(16.7)	0(0.0)	0(0.0)	1(50.0)
Brown	0(0.0)	0(0.0)	0(0.0)	0(0.0)	0(0.0)	0(0.0)
Green	0(0.0)	0(0.0)	1(16.7)	1(10.0)	0(0.0)	0(0.0)
Khaki	0(0.0)	0(0.0)	0(0.0)	0(0.0)	0(0.0)	0(0.0)
Blue	1(16.7)	0(0.0)	1(16.7)	2(20.0)	1(50.0)	0(0.0)
Violet	0(0.0)	0(0.0)	0(0.0)	0(0.0)	0(0.0)	0(0.0)
Purple	0(0.0)	0(0.0)	0(0.0)	0(0.0)	0(0.0)	0(0.0)
Multi	2(33.2)	2(20.0)	0(0.0)	0(0.0)	0(0.0)	0(0.0)
White	0(0.0)	2(20.0)	0(0.0)	1(10.0)	0(0.0)	1(50.0)
Gray	0(0.0)	0(0.0)	0(0.0)	0(0.0)	0(0.0)	0(0.0)
Black	1(16.7)	4(40.0)	2(33.2)	5(50.0)	0(0.0)	0(0.0)
합계	6(100)	10(100)	6(100)	10(100)	2(100)	2(100)

<표 13> 캐릭터 캐주얼 스타일 코디네이션 비교표(%)

구분	액세서리	서울	상하이
신발	펌프스	1(12.5)	2(16.7)
	샌들	2(25.0)	2(16.7)
	슬리퍼	5(62.5)	7(58.3)
	스니커즈	0(0.0)	1(8.3)
	합계	8(100)	12(100)
가방	토트백	0(0.0)	2(25.0)
	숄더백	6(85.7)	5(62.5)
	크로스백	1(14.3)	1(12.5)
	합계	7(100)	8(100)



<그림 14>
서울 캐릭터
캐주얼 스타일



<그림 15>
상하이 캐릭터
캐주얼 스타일

<그림 15>의 차이처럼 상하이 여성들은 신체를 노출하는 일관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며(43) 44) 45) 46) 47), 상하이 이외의 지역(베이징, 하얼빈, 다롄)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중국 여성의 전반적인 취향으로 해석된다.

IV. 결론 및 제언

21세기 의복 발전의 추세는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한 고기능성의 쾌적하고 편안한 의복 개발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현대인의 의복 선호도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하드한 정장류 보다는 소프트하고 편안한 캐주얼류로 전환되고 있으며, 직장에서도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캐주얼 스타일을 착용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캐주얼 의

류시장도 점차 확대되어 패션시장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었으며 이제에는 다른 어떠한 의류 분야보다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많은 패션 브랜드들이 중국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현 시점에 중국 20-30대 여성들의 의복 선호경향이 가장 잘 드러나는 스트리트 패션 분석을 통해 한국과 중국의 미묘한 스타일링의 차이를 비교해 보는 것은 중국 패션시장 진입에 필수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2008년 여름 서울과 상하이의 스트리트 패션 사진 자료를 분류한 결과 주요 캐주얼 스타일을 이지, 진, 로맨틱, 캐릭터 캐주얼로 대별할 수 있었다. 네 스타일의 빈도는 이지 캐주얼, 진 캐주얼, 로맨틱 캐주얼, 캐릭터 캐주얼 순으로 나타났다. 각 스타일별 아이템, 의복 색, 액세서리의 착용시 공통점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이지 캐주얼은 두 도시 모두에서 착용빈도가 가장 높고, 유사하게 나타났다. 원피스 보다는 상·하의로 착용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는데, 상의는 두 도시 모두 티셔츠가, 하의는 두 도시 모두에서 팬츠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팬츠 중에서는 슬 팬츠가, 스커트 중에서는 미니스커트의 빈도가 가장 높았다. 원피스는 두 도시 모두 H-실루엣원피스가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 색은 상의에서는 Multi 계열, White 계열, Black 계열 순으로 두 도시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하의는 서울의 경우 White 계열과 Black 계열이 유사한 비율로 나타난 반면, 상하이에서는 Black 계열의 선호도가 더 높은 차이를 보였다. 액세서리에 있어서는 숄더백이 두 도시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신발은 서울에서는 슬리퍼를, 상하이에서는 스니커즈를 가장 많이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이지 캐주얼에서는 아이템상 두 도시 간에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착용방법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서울의 이지 캐주얼은 비교적 신체 노출이 적고 여유있는 스타일인 반면, 상하이의 이지 캐주얼은 신체선이 더 드러나고 타이트하며, 특히 상의의 경우 팔과 어깨, 등 부위를 노출한 경우가 많았다.

진 캐주얼도 이지 캐주얼 다음으로 높은 빈도로 나타났으며, 상·하의로 착용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상의는 티셔츠가, 하의는 두 도시 모두에서 팬츠의 비율이 매우 높았으며 특히 스트레이트팬츠와 롤업 팬츠가 선호되고 있었다. 반면 스커트는 착용 비율이 낮았으나, 착용된 중에서는 미니스커트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진 소재의 원피스는 서울은 6명이었고 상하이에서는 착용 사례가 없었으므로 진 캐주얼에서는 원피스드레스의 착용빈도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의복 색은 상의에서는 두 지역 모두 Multi 계열, White 계열, Black 계열 순으로 나타났고, 하의는 두 지역 모두 Blue 계열과 Multi 계열이 선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소재가 갖는 색의 특성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주요 액세서리 중 가방은 숄더백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신발은 서울에서는 슬리퍼가, 상하이에서는 스니커즈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지 캐주얼과 같은 현상으로, 중국에서의 스니커즈 높은 빈도를 보여준다. 특히 빅 숄더백의 유행은 서울과 상하이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어서 액세서리 코디네이션 측면에서 유행의 수용 속도가 두 도시 간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진 캐주얼의 아이템에서는 두 지역의 차이가 많지 않았으나, 착용방법에 있어서는 서울 여성은 비교적 단정한 스타일을 보인 반면, 상하이 여성은 신체를 노출하는 섹시한 스타일을 선호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었다.

로맨틱 캐주얼의 주요 아이템은 원피스였다. 상·하의로 착용되는 경우, 상의는 블라우스가, 하의는 스커트가 선호된 것으로 두 도시가 같게 나타났다. 원피스에서는 서울은 H-실루엣 미니원피스가 가장 선호되었으나, 상하이에서는 X-실루엣의 무릎길이 원피스가 가장 많아 신체선을 강조하는 상하이 여성들의 성향이 나타났다. 의복 색에 있어서 상의는 서울과 상하이 모두 White가 가장 선호되었으며, 하의 색은 서울 지역은 Black과 Brown 계열이, 상하이 지역은 Multi 계열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원피스는 모두 Multi 계열의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원피스에 사용된 화려한 문양의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주요 액세서리는 숄더백과 샌들(서울) 혹은 슬리퍼(상하이)로 나타났고, 착용방법에서는 서울의 경우 길이가 짧고 하이웨이스트의 A-실루엣이나 H-실루엣이

선호된 반면, 상하이에서는 무릎길이의 X-실루엣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두 도시 간 착장 시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캐릭터 캐주얼은 두 도시 모두에서 빈도 5%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상의는 두 도시 모두 슬리브리스가 많았고 하의는 서울에서는 스커트가 선호된 반면, 상하이에서는 팬츠가 선호되는 차이가 있었다. 원피스는 두 지역 모두 H-실루엣의 슬리브리스 미니원피스가 유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 색은 상의에서는 Multi, Black, Red 계열 순으로 두 도시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하의 색은 Black 계열이 서울보다 상하이에서 높게 나타났다. 주요 액세서리는 숄더백과 슬리퍼로 두 도시가 같은 결과를 보였다. 착장방법에 있어서는 두 도시 모두 길이가 긴 상의나 원피스를 레깅스와 레어드룩으로 착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경우에도 상하이 여성들은 다른 스타일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체에 과감하게 노출하는 일관된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며, 상하이 이외의 여러 지역에서도 나타나는 동일한 현상으로 볼 때 중국 여성의 전반적인 취향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서울과 상하이 여성의 캐주얼 스타일 비교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의복 착장 시 신체노출 여부와 의복의 타이트함의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로부터 상하이 여성들이 서울 여성보다 신체선을 과감하게 드러내며 의복 착장에 있어서도 서구 여성의 경우와 유사하게 신체의 노출을 꺼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상하이에 진출할 한국의 캐주얼 브랜드는 의복 디자인 시 한국과 달리 여유량을 약간 적게 한 타이트한 스타일 혹은 신축성이 좋은 소재를 사용하여 신체선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디자인, 적절한 신체 노출이 가능한 디자인을 시도하고 스타일별 선호되는 의복 아이템, 예를 들면 로맨틱 스타일의 주력 아이템으로 X-실루엣 원피스를 다양하게 디자인하여 제시한다든지 캐릭터캐주얼에서는 강렬한 색상의 과감한 디자인을 다양하게 제시하는 등의 상하이의 지역적 선호를 염두에 둔 디자인 및 상품 기획을 해야 할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토탈 코디네이션 측면에서 두 도시 간 유행의

수용 속도에 있어서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신발에 있어서 상하이의 높은 스니커즈 빈도를 감안하여 디스플레이 및 액세서리를 구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의 결과 국제도시 상하이 여성의 패션감각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지역별 비교연구가 이 지역에 진출할 한국패션 브랜드의 성공적 중국 패션 시장 안착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1) 조규화, 이희승 (2004). *패션미학*. 수학사, p. 36.
- 2) '09년 패션시장 상반기 분석 & 하반기 전망 (2009. 7 월호). *패션채널*, pp. 74-82.
- 3) 郭建南 (2006). *我國休閒服裝市場調查與品牌發展策略研究*. 絲綢, p. 4.
- 4) 식을 줄 모르는 중국시장 진출 (2007. 1. 29). *어패럴뉴스*, 3면
- 5) 江宏飛, 周偉 (2006). *韓國服裝進軍中國市場的特点分析及啓示*. 鑲織, p. 27.
- 6) 조규화, 이희승. *앞의 책*, pp. 503-504.
- 7) 김재운, 박길순 (2004). 한류 현상이 중국 신세대 패션에 미친 영향분석. *한국의류학회지*, 28(1), pp. 154-164.
- 8) 김효숙 (2000). 중국여성 소비자의 의복 디자인 선호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생활문화·예술논집*, 23(1), pp. 103-114.
- 9) 김찬주, 노미경 (2006). 서울과 베이징 여성들의 데님 패션 비교 연구. *복식*, 56(2), pp. 32-44.
- 10) 최경희 (2005). 중국 스트리트 패션에 나타난 캐주얼 이미지 연구. *호남대학교 학술논문집*, 26(1), pp. 875-894.
- 11) 최경희 (2004). 중국 직장여성의 스트리트 패션연구-베이징을 중심으로-. *호남대학교 학술논문집*, 25(1), pp. 221-234.
- 12) 임순, 김효숙, 손희정 (2001). 한국과 중국의 스트리트 패션 비교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10), pp. 19-28.
- 13) 천지영, 배수정 (2006). 2005년 여름 중국 대련시 여성 스트리트 패션분석. *패션비즈니스*, 10(2), pp. 1-17.
- 14) 배수정, 오현아 (2007). 중국의 새로운 성장축 동북지역 스트리트 패션분석(제2보). *한국가정과학회지*, 10(3), pp. 43-51.
- 15) 백정현, 배수정 (2008). 2006-2007 중국 대련시 여성 스트리트 패션 분석. *패션비즈니스*, 12(2), pp. 59-71.
- 16) 배수정, 백정현, 최윤규, 유화정 (2008). 2007년 여름 중국 대련시 여성 스트리트 패션 분석. *한국의류학회지*, 31(11), pp. 34-45.
- 17) Bae, Soo-Jeong (2007). An Analysis of 2006 Summer Street Fashion in Harbin, China. *Journal of Fashion Business*, 11(3), pp. 87-96.
- 18) Bae, S. J., Wee, E. H., & Jung, K. H. (2008). 2007 Summer Women's Street Fashion in Shenyang.

- China. *Journal of Fashion Business*, 12(3), pp. 1-15.
- 19) 영캐주얼, 시장 주도했던 내셔널 브랜드 위축 (2008. 10월호). *패션채널*, pp. 48-50.
 - 20) 권은순 (2003). *한국 패션유통산업의 경향분석*. 아주대학교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5.
 - 21) *위의 책*, p. 22.
 - 22) 유은옥 (2005). *중소의류산업체의 디자인향상을 위한 여성복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53.
 - 23) 강창현 (2009. 7. 2). 넥타이를 폼시다. 포스코 홈페이지. 자료검색일 2009. 8. 21. 자료출처 <http://www.pscoco.kr>
 - 24) 영캐주얼, 시장 주도했던 내셔널 브랜드 위축. *앞의 책*, pp. 48-50.
 - 25) 정귀수, 김유진 (2009). *국내 의류시장 분석 및 향후 전망*.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산업연구시리즈 11호, pp 1-2.
 - 26) *위의 책*, p. 3.
 - 27) 유은옥. *앞의 책*, p. 53.
 - 28) 하반기 여성캐주얼 시장 '빅뱅' (2009. 7. 27). *어패럴 뉴스*, 1면.
 - 29) '패스트 패션' 토종업체들 반격 (2009. 8. 22). *중앙일보*, 13면.
 - 30) 영캐주얼, 시장 주도했던 내셔널 브랜드 위축. *앞의 책*, pp. 48-50.
 - 31) 성숙기 진입한 캐주얼 시장 진화 거듭 (2009. 1. 5). *Fashion Insight*. 자료검색일 2009. 8. 19 자료출처 <http://www.fi.co.kr>
 - 32) *위의 책*.
 - 33) Fashion Marketing in Beijing Olympic 삼성디자인넷. 자료검색일 2009. 7. 20 자료출처 <http://www.samsungdesign.net>
 - 34) 중국 의류시장 동향 (2007. 5. 28). *어패럴뉴스*, 19면.
 - 35) 중국 소비자의 의류구매습관 조사보고서 (2008. 4. 28).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자료검색일 2009. 8. 20 자료출처 <http://www.kofoti.or.kr>
 - 36) 양동평 (2006). *城市季风-北京和上海的文化精神*. 장영권 역 (2008). *중국의 두 얼굴*. 펜타그램, pp. 338-348.
 - 37) 김해동 (2005). *캐주얼 의류브랜드의 기업중사자와 소비자간 브랜드포지션 인지 차이*.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2.
 - 38) 배수정, 백정현, 최윤규, 유화정. *앞의 책*, p. 37.
 - 39) 김기욱 (2004). *Jeans Wear의 디자인 특성 비교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34.
 - 40) 배수정, 백정현, 최윤규, 유화정. *앞의 책*, p. 37.
 - 41) 간문자 (2007). *패션과 디자인*. 신정, p. 222.
 - 42) 배수정, 백정현, 최윤규, 유화정. *앞의 책*, pp. 37-38.
 - 43) 최경희 (2005). *앞의 책*, pp. 228-232.
 - 44) 최경희 (2004). *앞의 책*, pp. 886-887.
 - 45) 배수정, 백정현, 최윤규, 유화정. *앞의 책*, pp. 39-40.
 - 46) Bae, Soo-Jeong. *op. cit.*, p. 91.
 - 47) Bae, S. J., Wee, E. H., Jung, K. H., *op. cit.*, p. 2.